



2010 10

# 햇불

2·28 제10권 3호 통권39호

**시론** 법률안 개정으로 2·28민주운동 명예회복

**특집**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과 대구교육의 발전 방향  
미래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한 대구교육의 방향과 교육감 공약 이행 전략 과제

**특별기고** 故 이대우 교수 유고집 출판기념회  
故 柏堂 金演哲 教育監 靈前에 바칩니다  
2·28의 “햇불지” 새 제호(題號)  
낙동강과 문화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나의 꿈을 실현하자



사단  
법인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www.228.or.kr](http://www.228.or.kr)

2010년 10월 15일

NEW STANDARD 365.HOSPITAL

365병원이 **관절전문병원**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365 **편안한관절** Hi Healthy & Happy Life!



## 관절센터

### • [인공관절센터]

손상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무릎, 어깨, 발목, 엉덩이 등)에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최신 수술방법입니다.



▲ 대퇴부 무릎관절인공관절 수술시



▲ 인공관절 치환술(어깨관절 - 수술시)

### • [관절내시경센터]

관절을 직접 절개하지 않고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통해 관절내시경을 삽입, 병상을 모니터로 직접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며 회복이 빠르고 병위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이 특징입니다.



▲ 관절내시경 수술



▲ 비배설 관절내시경이 가능도 무릎



▲ 관절내시경 수술로 어깨관절 수술

### • [자기관절보존센터]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자기 관절을 10년 가량 더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여 출혈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이 짧으며 추후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시 인공관절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관절 보존 수술(어깨관절 - 수술시)

### • [족부 클리닉센터]

발의 통증과 질환을 치료할 때 통증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생체역학적 분석을 통해 그 질환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근치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치적 치료(족부 클리닉 - 수술시)

### • [어깨관절센터]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석회성건염, 어깨관절의 승모성 탈구 등 어깨관절센터에서는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해 환자별 질환별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깨관절 수술(어깨관절 - 수술시)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8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일요일 - 개사원 응급실 진료

### ● 진료과목

정형외과 1과·2과·3과·6과/내과/상급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학과

## 365일~24시간~

실시 수술과 실사 진료를 바탕으로 365일 건강관리를 실현코자합니다. 숙련된 각과 전문의들과 진열하고 성실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과 최상급 시설에서 완벽한 첨단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차별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65일 오직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본원은 건강세상, 행복세상을 만들어자 합니다.

## 365HOSPITAL MEDICAL SYSTEM

환단당의료 향상을 최우선시하며 제공합니다

### • 감염방지의 무균수술실

수술중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고 통증을 보장하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무균수술실까지 갖춰 수술사에도 더욱 안심입니다.



### • MRI진진검사

기존의 MRI에 비해 해상도나 대조도가 월등히 향상되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이 가능하여 검사시간 또한 대폭 줄어들어 환자의 불편함도 최소화했습니다.



### • 최신나선형CT

신체의 밀집 정도는 부위를 단층영상으로 나타내는 영상장치로, 밀도의 아주 작은 조차사이의 밀도차도 구별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요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이용됩니다.



### • PACS, EMR System

환자의 병력에서 진료, 수술까지 병내의 모든 DATA를 관리전달하는 진료정보제공시스템은 물론 병원의 모든 병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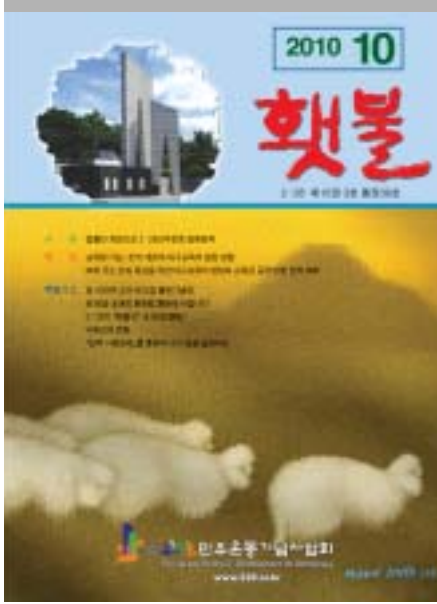
### ● 찾아오시는 길



053.7200.365

▶ 비스노션 156, 308, 400-1, 402, 405, 420, 425, 508, 521, 623, 663, 724





▲ 표지 : 만추(오일 / 캔버스 4호, 2010년작)  
작가 : 문상직

제10권 3호 통권 39호 여름

발행인 / 안 인 옥

편집인 / 김 약 수

인쇄 / 2010년 10월 15일

발행 / 2010년 10월 15일

편집위원 / 김상규 이방현 장영향 김광주

서정일 박명철 김동환 김종인

발행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0-803 대구광역시 중구 남문3길 6(남산1동 843번지)

(문에서림 4층)

Tel. (053)257-0228, Fax. (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인쇄처 / 신문사(053)474-9000



제자 : 혜정 류영희

2010년 10월 제10권 3호 통권 39호 가을

- 시론** 04 **법률안 개정으로 2·28민주운동 명예회복**  
/ 이해봉 국회의원(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사)
- 2·28특집** 06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과 대구교육의 발전 방향**  
/ 이걸우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 14 **미래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한 대구교육의 방향과 교육감 공약 이행 전략 과제** / 이응철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 특별기고** 22 **故 이대우 교수 유고집 출판기념회**
- 24 **故 柏堂 金演哲 教育監 靈前에 바칩니다**  
/ 안인옥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 27 **2·28의 “햇불지” 새 제호(題號)**
- 28 **낙동강과 문화** / 홍중홍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고문
- 36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나의 꿈을 실현하자**  
/ 김상규 2·28편집위원회 간사
- 40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설계 공모**
- 4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2·28도로명주소 제정**
- 44 **4대강 살리기 낙동강 현장체험**
- 문예광장** 45 **시·同行 / 황명강 시인**
- 46 **수필·끼 / 박지평 수필가**
- 2·28일지** 48 **西芝 金潤植 시비 건립 제막식에 참석**
- 49 **50년 책자발행 편찬위원회 「햇불 39호」 제작 편집회의**
- 50 **2·28 일지**

※ 게재된 글은 본 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원고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입회안내**
  - ※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을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 계승발전과 우리 나라 민주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 2·28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영구히 전산일력 보존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1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 본 법인에 납부하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54호)

## 법률안 개정으로 2·28민주운동 명예회복



이 해 봉  
국회의원(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푸** 른 가을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하고 높아만 보입니다. 하늘은  
높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10월은 우리  
시대에 큰 귀감이 되는 2·28 민주화운  
동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항일운동의 주요한 거점이었고,  
민주화운동의 본산이었습니다. ‘2·28대  
구민주화운동’은 과거 자유당 정권의 부  
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며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  
화선이 된 자발적 민주화운동의 효시입  
니다.

우리의 역사와 기억 속에 소중한 ‘2·28  
대구민주화운동’은 당시 국민들에게 용기  
와 자신감을 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나라를 걱정하고 정의감에 차 있  
던 학생들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고 당시  
의 정의감과 정열은 지금도 그대로입니

다. 우리 역사에서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이 2009년 12월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는 ‘3·15마산의거와’ ‘4·19혁명’만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구의 민주화운동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어 ‘2·28대구민주화운동’이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낸 ‘2·28대구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할 수 있게 되었고 민주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던 대구의 자존심이 회복되었습니다.

‘2·28대구민주화운동’이 올해로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50주년은 ‘2·28대구민주화운동’이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으로 반영된 이후 처음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

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하여 여야가 포함된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상정했습니다.

법안 심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은 동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서 “호남에서도 ‘2·28대구민주화운동’ 덕분에 대구를 가슴속의 고향처럼 생각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될 것”이라고 하며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에 대한 순수한 의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숭고한 정신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바로 세운 2·28대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와 민주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큼니다. 댁내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0월 1일

#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과 대구교육의 발전 방향



이 겔 우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 I. 시작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0. 9. 1.자로 민선 첫 우동기 교육감의 의지를 담은 선진형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에 단행한 기능·조직 개편은 실추된 대구교육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본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의 기능을 종전의 관리·감독 위주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지원을 최우선하는 ‘학교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개편 방안에 맞춰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또한, 교육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청으로 자리매김하고, 교육수요자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금번에 단행된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이 하루 빨리 교육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II.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내용

###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가. 추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침(2010. 5. 7.)에 따라 종전의 관리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교현장 지원 위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함이다.

#### 나. 필요성

##### 1) 기능적 측면

- 교육자치의 오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은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수행에 머물고 있음.
- 단위학교, 교사에 대한 기능이 미약하여, 날로 고도화·다양화되는 현장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 기능은 미비함.

##### 2) 조직적 측면

- 획일적·경직적 조직 구조로 운영

### 2. 추진 경과

가. 선진형 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수립 : 4. 30.

나. 주요 이관업무 부서 의견수렴 및 T/F 구성·운영 : 5. 3. ~ 5. 31.

다. 선진형 기능·조직 개편(안) 의견수렴 : 5. 25. ~ 6. 9.

- 부서 명칭, 부서별 업무 조정 등 협의

라. 기능·조직 개편(안) 확정 : 6. 11.

마. 관련 자치법규 개정 : 6. 14. ~ 8. 3.

- 행정기구설치조례·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9. 1. 선진형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시행

### 3. 주요 내용

#### 가. 기능 개편 방향

- 1) 본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간 기능 재배분

지역교육청 → 본청	본청 → 지역교육청	본청·지역교육청 → 교육과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 학생수용계획</li> <li>• 교감 휴 · 복직, 관내전보 등</li> <li>• 시설 신 · 증 · 개축, 토지매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계고 컨설팅 장학, 교육과정 운영 지도</li> <li>• 고 · 특 보건 · 급식</li> <li>• 고 · 특 시설 유지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평가</li> </ul>

2)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해 왔던 관리 · 감독 성격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  
 (대신 줄어든 행정관리적 업무 대신 단위학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됨)

**나. 주요 개편 내용**

1) 시교육청(본청)

가) 2국 2담당관 10과 50담당에서 ⇒ 2국 3담당관 10과 53담당으로 변경

나) 대외 홍보 기능 강화

- 교육감 소속에 홍보담당관을 신설하여 정책홍보, 공보담당 설치

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시스템 개선

- 교육비리 척결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감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중합감사는 축소하여 기획 · 사안 감사로 전환,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감사의 독립성 확보

라) 정책기획기능 강화

- 정책기획담당관에 정책기획과 예산, 평가를 일원화하여 중장기적인 대구교육을 예측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뱅크 역할 수행

마)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력증진 전담팀 및 사교육대책 전담팀 신설

바)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여건개선 전담팀 신설

사) 지역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시설기획 등 이관, 교육시설과 담당부서 재설계

2) 지역교육청

가)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 : 교육지원청(동부, 서부, 남부, 달성)

- 2국 6과 18담당 ⇒ 2국 6과 18팀(달성교육지원청 : 2과 9팀)

나) 담임 장학을 폐지하여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

다) 일반계고 컨설팅 장학 및 교육과정 지도, 고등학교 · 특수학교, 보건 · 급식지원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

라) 시설 ·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술자에 의한 학교시설 설비수리 진단 · 점검

마) 학교단위 차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원어민강사, 심화과정 강사 등 강사요원을 지역교육청에서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



- 바) 심화과정 개설, Wee센터를 통한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학생 지원 서비스 제공
- 사) 학부모 고충 상담, 교육정보제공, 학부모 연수 등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3) 직속기관
  - 가) 교육과학연구원 : 학교평가 일원화 및 방법개선으로 객관성 확보
  - 나) 교육정보원 : 학교도서관 지원업무 일원화, 기자재 수리 정비 업무 폐지

### III.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구교육의 발전 방향

#### 1. 대구교육의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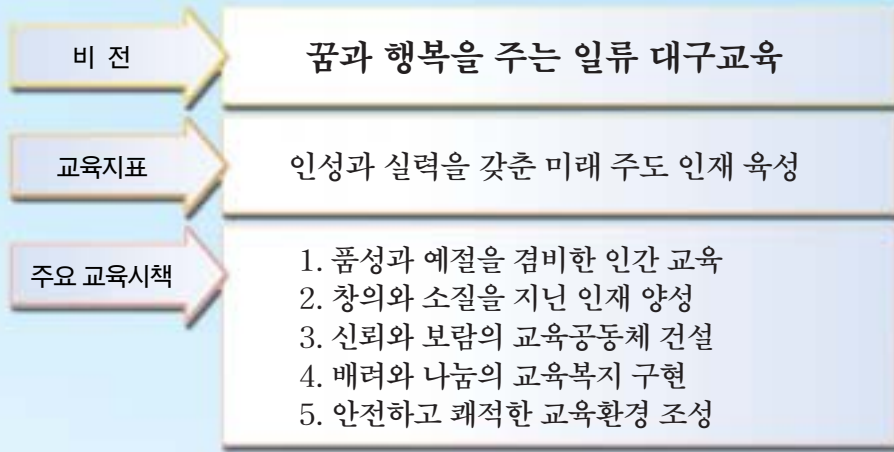
##### 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구교육의 방향

- 1) 지식기반 글로벌 경제로 요약되는 국가 간 무한 경쟁은 우리가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학생의 인간적 품성에 더하여 리더의 자질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교육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태도와 열정의 도약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교육의 총체적 위임권자라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그 질적 수월(excellence)을 공교육의 책무로 여기고 있음.
- 2) 새롭게 도입된 주민 직접 선거에 의한 교육감 선출은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제시된 공약사항의 합당한 이행과 그에 따른 장 · 단기적 성과의 확고한 거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의 대구교육은 기존에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여야 할 지대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3) 따라서 제8대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취임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교육 목적의 궁극적 이상성에 부합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야 함.

##### 나. 대구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

우리 대구는 예로부터 학향의 고장으로 ‘학문의 수도’, ‘교육학술의 중심도시’로 그 명성과 위상을 굳건히 지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시 · 도교육청 및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 저조한 성적으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과 신뢰가 한없이 추락되었다. 우리 대구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력 증진’, ‘사교육비 절감’, ‘교육청렴도 향상’의 교육현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단에서는 대구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비전과 교육지표, 주요 교육시책을 재설정하고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새롭게 설정된 대구교육의 방향



2) 새롭게 제시된 대구교육의 정책(교육감 공약 이행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가) 대구학생 학력 증진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로 대구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

- 교육 여건이 낙후한 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으로 우수학생 타시도 유출 방지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2014년까지 일반계고등학교 30개교 정도에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 광역학군제 도입으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 간 경쟁 체제 구축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우수학생 쏠림 현상 완화
  - 2011학년도 일반계고교 배정방식 개선 : 희망 배정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
- 자율형학교를 지역별로 확대 지정하고 이를 지역 거점학교로 집중·육성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학력향상 지원 체제 구축 및 단위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 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로 기초·기본학력 정착
    - 학력관리 지원 체제 구축 : 학력증진지원단 운영, 학력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나) 창의·인성교육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능력 함양

-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로 학력향상 기반 구축 및 올바른 인성 함양
  - 창의·인성교육지원단 역할 강화로 창의적 체험활동 체계적 지원
  - 탐구·토의활동을 통한 창의력 사고력 신장
- ‘좋은 책 함께 읽기’로 범시민 독서 운동 전개
- 글로벌 예절 문화 가꾸기
  - 예절교육체험센터 2011년 중학교 2개소 확대 구축(총 17개소 운영)

-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로 문제해결력 신장
    - 서술형·논술형 문제 30% 이상 출제
    -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국악교육 활성화
  - 교육공동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칭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
- 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교육정책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과 돌봄 기능 강화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및 육아 부담 경감
    - 만 5세아 단계적 무상교육비 지원(2014년까지 전면 실시)
    - 유치원 종일반 학급 연차적으로 증설 : 704학급('14년)
    - 아침부터(08:00) 야간까지(22:00) 안심 돌봄 유치원 운영 : 55개원('14년)
  - 영어 친환경적 환경 구축과 영어교육 노출기회 확대로 영어 사교육비 경감
    - 주 1시간 이상 영어체험(전용)실에서 수업
    - 초3~4학년 영어수업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실시
    - 원어민교사 1인당 학생 수 획기적 개선 : 781명('11년 9월)
  - 초등 수학 보조교사 배치 : 2014년까지 90개교 배치
  -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100% 정착
  - u-러닝 환경구축과 우수 콘텐츠 제공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중·고등학생에게 스타강사 강의 콘텐츠 제공
  -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우수강사 확보·관리로 사교육을 학교내 체제로 흡수
    - 외부전문업체(사회적 기업)에 방과후학교 위탁
    -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증제로 강사 질 관리
- 라) 청렴도 상위권 도약으로 대구교육 위상 제고 및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대구교육 실현
- 교장공모제 점진적 확대 : 매학기 교장결원 예정학교 수 대비 50% 이상 시행
  - 교육전문직 선발 투명성 확보 : 면접시험 심사위원을 50%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 발주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시스템 전면 도입(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전자계약, 전자대금 청구 전면 시행)
  - 지방공무원 인사 사전예고 및 사후 모니터링
  - 인사자료 사전공개, 공모 및 순환근무제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 각종 교육비리를 사후 통제할 수 있는 감사기능 강화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 본청 감사담당관 외부공모 및 교육감 직속 배치


- 교육 핫라인 설치 운영 : 교육감과 직접 주고받는 직통 이메일 개설
- 마) 나눔과 배려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선진 교육복지 환경 조성
  - 교육취약계층에 교육비, 급식비 지원 확대
    - 교육취약계층 자녀 학비,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확대
    -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 2014년까지 전체학생 대비 40%로 확대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 이탈 학생 지원 확대
  - 교원복지 개선과 획기적인 업무 경감으로 사기 진작
    - 교원 업무 경감 및 교직원 근무 환경 개선
    - 교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 교직원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
  - 대구지역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계고 활성화 정책 추진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전문계고 지역간 균형 배치
  - 친환경 학교 조성으로 학생 건강 증진
    - 석면 함유 천장 텍스 교체 (2014년까지 400실 교체)
    - 학교시설 유지관리 One-Stop 지원센터 설치
    - 건강 지킴이실 설치 : 유휴교실 0.5실을 손씻기 및 양치시설 공간으로 개조 (2013년까지 104개교 설치)
    -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 연도별 추진 계획
  -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 및 유치 확대

## 2. 기능·조직 개편의 현장 착근을 위한 노력

- 가. 지역교육청의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 모델 정립이 필요함.
- 나.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진취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요구됨.
- 다. 기능 조직 개편에 따른 조기 업무파악 및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함.
- 라. 일부 고교업무 및 컨설팅 장하학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 전문직 인력 지원 및 교육전문직 증원 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우선 재배치하여 교육서비스 제공 기능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해야 함.
- 마.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및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함.
- 바. 기능 조직 개편의 효율성과 개선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IV. 맺으며

이번에 단행한 대구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 개편은 유사한 성격의 행정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낭비요인 제거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하며, 현장지원 기관으로서의 교육청 위상 확보와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구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다시 말해 이번 기능 개편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으로 지역교육청이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단위학교와 일선교사, 교육수요자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의 변화로 교육수요자에게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해도 일선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면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을 최종적으로 실천하는 곳도 일선학교이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곳도 일선학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의 교육서비스 기능이 조기에 안착되어 교육청이 지원 기관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렇게 될 때 대구교육은 힘차게 도약할 것이며,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 : 문상직(MOON, SANG-JIG)

### ▼ 표지 작품



만추(오일/캔버스 4호, 2010년작)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동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24회

2005 대판ART FAIR(Osaka ATC)  
EGYPT 수교10주년 초대전(Cairo)  
2006 동북아시아전(일본북구주 시립미술관, 중국민족문화관)  
2006 한국 인도 현대미술교류전(LALIT Kala Akadmi)  
2006 THenew yearproiect Oni yes(공평아트센터)  
2006 인사동 현대미술축제(문화지구 4주년기념, 인사Art센터)  
2007 한국-터키 수교 50주년기념 국제미술전시회  
(터키 이스탄불 올디스왕국전시관)  
2009 한-몽골 수교 19주년기념 초대전)

남·북 미술교류 추진위원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심사위원 역임  
금북문화예술상, 대구시초대작가상, 미술세계작가상





정책기획단 출범식 장면(2010. 6. 15.)

# 미래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한 대구교육의 방향과 교육감 공약 이행 전략 과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리고 지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실천을 통해 특화된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명품 교육도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구의 이미지를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응 철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 I. 들어가며

지난 9월 1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단에서는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우동기 교육감의 교육 방향과 공약 이행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6월 15일에 출범하여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정책기획단에서 만든 것으로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공약 정책들이다.

이 로드맵에는 교육감의 공약뿐만 아니라, 타후보의 공약, 시장과 자치단체장, 시의회 의원들의 교육관련 공약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서 대구교육의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은 아니다. 로드맵에는 대구교육의 비전을 담은 교육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는 제8대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철학 및 의지, 공약사항, 취임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추된 대구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고, 누구나 만족하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 대구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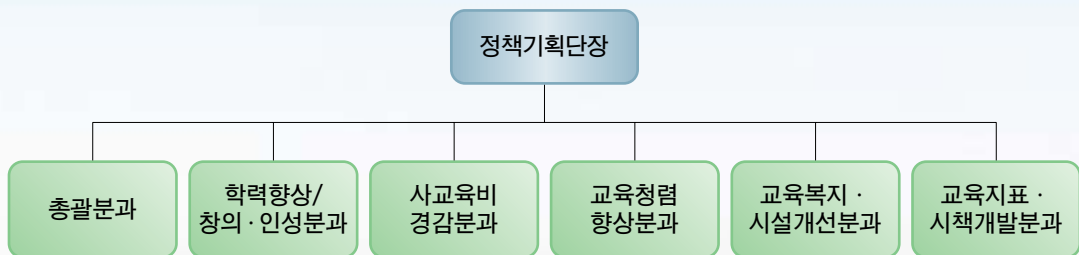
## II. 대구교육의 방향과 공약 이행 전략 과제

### 1. 정책기획단 운영

가. 기간 : 2010. 6. 15. ~ 8. 31.

나. 조직 및 구성

1) 조직도



2) 소속·직급별 구성 현황

담당관	본청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학교				계
	장학관(사)	사무관	6급	과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2	12	6	3	1	1	1	5 (초3, 중1, 고1)	4 (초3, 고1)	4 (초1, 중1, 고2)	1	40

## 2. 대구교육의 방향과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 과제

### 가. 대구교육의 방향

교육지표·시책개발분과에서는 대구교육의 비전, 교육지표, 주요 교육시책을 설정하기 위해 학부모(4,629명), 교원(4,484명), 교육전문직·교육행정직(348명) 등 총 9,46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분석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토론회, 협의회를 거치는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대구교육의 방향은

- 비전을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으로 하고,
- 교육지표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 육성’으로 하였으며,
- 주요 교육시책은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 교육’,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 양성’,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 건설’,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인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꿈을 갖고 이루게 하여 행복을 주는 세계 속의 일류 대구교육을 지향하는 의미이고, 교육지표인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 육성’의 인성과 실력의 키워드는 설문지 응답자의 인성(5,632명, 59.5%), 실력(2,877명, 30.4%)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철학과 2009개정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되었다.

주요 교육시책 중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 교육’,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 양성’ 등은 인간 교육과 인재 양성의 교육활동 전략이며,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 건설’,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은 교육지원 활동 전략이다. 대구교육의 비전, 교육지표, 주요교육시책의 설정으로 대구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대구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나.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 과제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 과제는 교육감 공약사항 62개 과제, 타후보 공약 23개 과제, 신규 발굴 23개 과제, 한 단계 발전시킨 계속 사업 12개 과제 등 총 12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현황 및 4년간 연차적 추진계획, 예산확보 방안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 1)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

##### 가) 학력향상/창의·인성분과

##### ① 기본 방향

- 교육여건이 열악한 일반계고에 기숙사를 건립(증축, 교실 리모델링)하여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력향상 실현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학력향상의 기반 구축 및 올바른 인성함양
- 목표의식 함양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와 획기적 진학지도 방안으로 명문대 진학률 제고
- 예·체능 분야 지원 확대로 즐거운 학교분위기 조성 및 감성교육 강화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행복학교’ 운영으로 낙후지역의 학력저하 해소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② 전략 과제 수 : 일반계고 기숙사 연차적 건립 등 34개 전략 과제

③ 주요 전략 과제 내용

- 여건이 열악한 일반계고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2011년 5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30개교에 기숙사 건립
  - 향후 4년간 유휴교실 추산,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소요재원 확보
- 학습 부진학생 책임 지도로 기초·기본학력 정착
  -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강화
  - 학습 부진학생 지도 경비 지원
  - 대구 e-스터디를 활용한 학력향상 사이버학급 운영
- 자기주도학습중점학교를 선정하여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에 수준별 강좌 개설
  - 자기주도학습중점학교 5개교 시범운영 후 결과에 따라 10개교로 확대 운영
  -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수준별 강좌 개설
  - 수준별 강좌에 대한 학생 자율적 선택권 확대
  - 1자율학습실 1관리자 운영 및 자율학습지도비 지원
- 교육지원청에 고등학생 수준별 심화학습반을 운영하여 수월성 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에 심화학습반을 운영하여 우수학생의 학습 요구 충족
  - 학생수가 부족하거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심화과목 개설
- 학력관리와 진학지도 전담팀을 구축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로 입학사정관제 등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
  - 교육지원청에 생활지도전문가·학력전문분석관·진로상담전문가 배치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질 높은 진로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학력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학생 개인별 체계적 학습전략 수립 및 진학상담
- 규제 위주의 학생 지도에서 인권 친화적 학생 지도로 관점 변화를 유도하고, 교원의 교

권 보호, 교육의 지원자이면서 수요자인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가칭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

- 교육공동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
- 가칭 ‘대구교육권리헌장’을 기반으로 한 학교별 학생생활지도규정(편람) 재정비

• 탐구·토의 활동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 신장

-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탐구·토의 활동 활성화
- 협력교수활동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 및 자기 표현력 배양

• 우리 고장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문화·예술교육 전개

- 꿈과 감성을 담아내는 스토리가 곧 경쟁력이 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고장 문화콘텐츠 육성
- 지역사회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 「창의·인성교육지원단」의 역할 강화로 창의적 체험활동 체계적 지원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분과 및 창의·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분과 구성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교당 1,000만원 지원

나) 사교육비 경감분과

① 기본 방향

- 선진형 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단위시간의 수업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시작
-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문은 방과후학교로 끌어들이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 이와 같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로 사교육으로의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유·초·중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대구교육의 복지 실현

② 전략 과제 수 :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등 31개 전략 과제

③ 주요 전략 과제 내용

-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과 안심 돌봄 기능 강화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
  - 유아 무상교육비 단계적 지원
    - ⇒ 2014년 만 5세아(16,200명)에게 전면 무상교육 실시
    - 아침부터 야간까지 종일 안심 돌봄 유치원 55개로 확대
- 초·중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은 선진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위 수업 시간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 경쟁력 강화

- 초등 5·6학년에게 교과담당제 운영과 초등 수학 보조교사 배치로 학급내 수준별 학습지도 강화
-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100% 정착과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36개교로 확대
- 사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영어 친화적 환경 구축으로 영어교육의 노출 기회 확대
  - 초 3·4학년 내년부터 영어수업 주당 3시간으로 확대 시범 운영
  - 원어민교사를 493명 늘여 원어민 1인당 학생수를 1,591명  
→ 781명('11년 9월)으로 획기적 개선
  - 초등교사는 영어소양인증제 도입, 중등 영어교사는 English Buddy(영어친구맺기) 연수로 영어 교수력 증진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U-러닝 환경을 구축하여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수준 제고
  - 첨단 u-러닝 환경 구축과 EBS 및 IPTV 콘텐츠 서비스의 질 제고
  - 중·고등학생(20만 명)에게 스타강사 강의 콘텐츠 제공
- 사교육의 유혹을 방과후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 수요자 중심 선택형 강좌 개설 및 맞춤형 지도 학교를 60%로 확대
  -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증제로 교육청에서 강사의 질 관리
  - 퇴직자 등을 방과후학교 관리자로 임용  
⇒ 전문인이 방과후학교 관리로 교사업무 경감

#### 다) 교육청립 향상분과

##### ① 기본 방향

- 가급적 예산 수반 없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청립 대구교육 실현 시스템 구축
-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 쇄신
- 조직 구성원의 상호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제공

##### ② 전략 과제 수 : 전자입찰시스템 확대 실시 등 25개 전략 과제

##### ③ 주요 전략 과제 내용

- 청립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열린 인사 운영
  - 교장공모제 점진적 확대 : 매학기 정년퇴직 등 교장 결원 예정 학교 수 50% 이상
  - 교육전문직 선발 투명성 확보 : 외부 심사위원 50% 구성
  - 보직 장학관(교육연구원) 초·중등 순환근무
- 단가계약이나 구매대행 기관 등을 통해 시장물품을 구입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시

스텝 구축

- 각급학교 공통 소요물품은 제3차 단가계약
- 구매대행 기관을 통한 물품 구매
- 표준화된 동일 규격물품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공급 등
- 신규 교장 등에게 청렴 매뉴얼을 제공
  - 쉽게 유혹에 노출되는 초임 교장과 행정실장 대상
  - 비리 사례에 따른 예방 매뉴얼을 상세하게 작성 제공
- 청렴으뜸의 대구교육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감사담당관 외부공모 및 교육감 직속 배치
  - 부패신고 보상제 운영
  - 월 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 누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 등
  - 학교 시설 공사 미리 체결
    - 신기술 명분으로 특정자재/공법/기술명시 금지(스펙 금지)(※전국 최초)
    -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교육청 전·현직 직원 개입 차단
    - 공사 중, 완료 후 명예감사관/부패감시모니터단 현장 확인
    -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 실시
- 시민, 학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교육 핫라인 설치 운영
  -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문제 해결
  -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성

라) 교육복지·시설개선분과

① 기본 방향

-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의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교육 수혜 등으로 교육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철학을 교육복지 정책으로 구현
- 교직원 복지 개선과 업무 경감으로 교직원의 사기 진작
- 교사들이 교수·학습활동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공교육 신뢰 회복

② 전략 과제 수 :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등 30개 전략 과제

③ 주요 전략 과제 내용

- 더불어 행복한 학생복지 구현
  -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 수혜율(11.2%(’10년) → 40%(’14년))
  - 교육취약계층 자녀 학비 지원 확대(만5세아 단계적 무상교육비 지원 : 2014년까지)

전면 실시)

- 교육취약계층 자녀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확대
- 다문화·북한이탈 가정 자녀 지원 확대
-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직원 복지 증진 및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
  - 교직원 업무 경감과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 교직원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
  - 교직원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 보결 전담강사풀제 운영
  - 우수교원 해외 연수기회 확대
- 자연친화적인 선진 교육환경 조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배움터 제공
  - 아토피 환자 증가 예방을 위한 친환경 식자재 사용 확대
  - 전염병 예방과 구강 위생교육 강화를 위한 건강 지킴이실 설치
  - 깨끗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건축자재 친환경 제품 사용
  -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함유 천장 텍스 교체
- 학교시설 유지관리 One-stop 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교시설 유지관리 One-stop 지원센터 설치
  - 해피에듀 시설컨설팅 담임제 운영

### III. 맺으며

이번에 발표된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 과제는 우동기 교육감의 공약사항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에 한하여 대구교육 정책 전반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대구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 주요교육시책을 설정하여 대구교육의 새로운 틀을 짜고,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여 교육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후보 시절 구상했던 대구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과 최근 실추되어 있는 대구교육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감 공약의 3대 축인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청렴도 향상’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대구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는 의의가 대단히 크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리고 지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실천을 통해 특화된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명품 교육도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구의 이미지를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故 이대우 교수 유고집 출판기념회

- 언론재단 프레스센터 매화홀 -

지난 8월 20일 서울 언론재단 프레스센터 20층 매화홀에서 故 이대우 교수(2·28 이사) 1주기추모를 위한 유고집(2·28은 살아있다/지휘자 없는 합창)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망인 김향선 여사와 자제 중화(미주리대 저널리즘 박사과정), 영애 윤지(뉴욕대 작곡 박사과정) 등 유가족과 평소 가깝게 지냈던 경북고교동창생을 비롯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관련인사, 부산대학교 제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안



인옥 출판공동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형이 그렇게 갈구했던 2·28민주화운동사업회법에 2·28민주운동이 제자리를 차지했고 대구명덕초등학교 교정 한편에 5층의 기념회관 건립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의 빛을 모두 비우고 형만의 내세를 영위하기를 기도드린다”고 추도했다.



안인옥 2·28공동의장 추도사



이해봉 국회의원 인사말



강신주 백선예술대학 교수 추모 노래



제49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후 기념 촬영(2009. 2. 28.)

이번에 발간된 유고집은 제자인 영산대학교 김홍수 교수가 주축이 되어 편찬하게 되었는데 당초 김 교수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교수 정년퇴직기념으로 준비하던 것인데 이 교수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 유고집으로 바뀌 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편찬회는故 이대우 교수의 생전의 욕성이 담긴 동영상으로 된 약력 보고에 이어 팝페라 테너인 강신주 백선예술대학 뮤지컬학과 교수가 뮤지컬 이순신의 주제곡 “나를 태워라”와 “지금 이순간”이란 노래를 불러 고인을 추모했고, 유고집 봉정(奉呈), 이신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회장 추념사, 안인옥 2·28공동의장 추도사, 임용대 우인대표, 이해봉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스승의 노래, 미망인 김향선 여사와 장남 중남 군의 답례인사를 끝으로 이날 편찬회를 마쳤다. 본회에서는 안인옥 공동의장과 홍종흙, 류진춘 고문, 양성호 이사, 박명철 사무총장, 임대용 이사를 비롯한 제경동창생 다수가 참석하여故 이대우 이사 1주기를 추모하였다. ▮

## 故 柏堂 金演哲 教育監 靈前에 바칩니다



故 金演哲 前 教育監 眞影

들녘 오곡백과가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만산의 초목들이 옷을 갈아 입는 秋分節에 뜻밖에 접한 享年 79세로 他界하신 金演哲 教育監님의 비보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세인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嗚呼痛哉!

柏堂 金演哲 教育監님께서 慶北大學校病院 6棟 8층에 入院하고 계실 때 제가 문병차 병실을 찾았을 때 교육감의 막역지우셨던 김상조 전 경북지사와 김주현 전 경북교육감이 問病왔었는데 그때 간병으로 憔悴하신 사모님이 면회 사절이라 말씀해서 성명만 적은 메모지를 따님께서 전하며 빨리 쾌유할 것으로 믿고 돌아설 때의 그 애달픈 마음도 채 가지지도 않은데 별세하셨다는 비보의 엄습으로 정신을 가눌 수가 없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대구교육을 위한 그 열정, 그 교육애, 그 교육철학이 온 정신과 온 몸을 불살라셨기에 교육가족은 물론 온 시민이 슬프고 대구교육의 앞날을 걱정한 나머지 언론에서 마저 “교육개혁가”, “큰 어른”으로 지칭하며 “대구교육계 큰 별”이 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사립인 오성·영신학교에서 공립인 옥방분교, 안동농고, 매화중 교감 등을 거쳐 장학사, 중등교육과장, 학무국장, 부교육감, 4, 5대 교육감을 역임하시면서 학교교육과 행정



에 쏟은 그 열정은 세인들을 놀라게 하셨고 만인의 사표로 존경을 한 몸에 지니지 않았습니까?

청렴하고 외유내강하신 그 성품은 손자를 그렇게도 愛之重之하셨고, 古稀가 넘은 분이 白壽이신 모친을 즐겁게 하기 위해 젓꼭지를 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산 무을 본가에서 3년간 상식(上食)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어머님 유택 곁에 손수 당신의 유택을 마련하는 등의 효행은 우리들의 눈시울을 젖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동지들에게 베푼 慈愛로운 열정은 교육자로서 正道로 교육에 임해 올곧은 인격육성을 강요한 사자후였고, 節制된 清白한 삶은 萬人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고문님으로서의 자문, 고등학교 진학지도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진우회 고문님 등의 활동은 후대들을 아껴주고 이끌어주심은 노교육자의 송백조(松柏操)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嗚呼哀哉!

教育監님께서 오매불망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셨던 나날들, 학교 현장을 방문하시며 선생님들의 노고와 열의를 높이 평가하시고 격려하시던 그 모습, 운동선수들을 찾아 훈련 현장을 보시며 격려하셨던 그 순간들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대구고등학교장에 재직 중이었던 2000년 10월, 제81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부산에 새벽녘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사직구장에 내려오셔서 고등부 야구결승전을 관전하시다 대구고가 우승하자 흘리신 감격의 눈물은 한마디로 교육애의 결정체임을 후배교육자에게 보여주신 무언의 채찍질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학지도든, 특기자 육성이든 간에 교육여건 개선과 시설확보에 적극적이셨던 진정한 교육자요, 우리 교육자들의 큰 宗師였습니다.

지난 6월 2일 대구교육 수장(首長) 선출을 염려하신 끝에 밤늦게 미물인 저에게 수차 전화로 독려하시고 애원하셨던 대구교육에 대한 그 열정은 평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柏堂 金演哲 教育監님!

병상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하시며 지병과의 투병 중인 당신을 원망하시며 남은 일들을 계획하시던 그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공헌하신 혁혁한 일들은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세인과 교육가족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타계하심에 모두가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嗚呼哀哉!

교육감님에 관한 치적과 인간관계, 교육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몇 분만에 筆舌로 표현할 수 없음이 인간능력의 한계인가 봅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넋두리, 애뜻한 절규, 애절한 애원, 향연기속 아른거리는 그 모습, 가족과 지인, 후배들의 따뜻한 사랑 등이 우리들의 가슴을 애고, 후약을 기약할 수 없는 속세가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교육감님과의 인연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도 슬프고 애석하고 아쉬움을 주체할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마는 없는 것이 속인들의 인정인가 봅니다.

人命在天이고 나고 죽음이 자연의 섭리일진대 그렇게 愛之重之했던 가족, 정다운 동지, 지인, 제자들의 인연을 뒤로 한 채 홀연히 피안으로 이렇게 殫結음을 재촉하였습니까? 敎育監님은 市井雜輩들이 갖는 慾心을 버리시고 내성의 자기 투쟁이 강요되는 삶을 영위하셨고, 利他的 德目들을 실천하셨기에 세인들의 心界를 다사롭게 해 주심에 교육감께서는 世人들과 더불어 永生하실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생 동안 내심은 敬으로 外行은 義로서 慎獨하셨고 교육자로 庸德을 준수하고 庸言을 실천함으로써 萬人的 師表로서 세인들의 섬김과 존경을 받아 오신 분입니다.

敎育監님! 현세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일들, 못다 이룬 일들, 그간 맺은 인연 등을 모두 버리고 피안으로 웃으면서 가십시오. 이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빔을 모두 비우고 당신만의 내세를 가지시도록 우리들은 기도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일생동안 切磋琢磨해 오신 그 정신과 열정과 교육애만은 우리들의 가슴에 촛불을 밝혀 주셨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구교육이 반석 위에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감님! 西方淨土에서 永生不滅하시기를 誓願합니다. 卍

2010. 10. 2.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安仁旭 謹識

## 2·28의 “햇불지” 새 제호(題號)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50주년을 맞아 ‘2·28의 햇불지’ 제호를 혜정 류영희 선생께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휘호(揮毫)를 받아 이사회에서 새 제호로 확정하여 통권 39호(2010. 10.)부터 사용하기로 하였다.

〈 확정된 제호 〉



### ▼ 작가 약력



혜정 류영희

대구사범학교,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1983 제2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특선(한글 옥호빙심)  
1987 제6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특선(한글 거례의 맥박)  
대한민국 미술대전(서예부문) 초대작가  
대구시전 초대작가  
영남서예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서예대전(미협) 심사(95, 01)  
대구교육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민국 여류서예가협회 부이사장  
한국서학회 운영위원, 대구미술협회 이사  
한국교육미술협회 및 학회 자문위원  
(사)대구서예가협회 이사장, 경북서예학원 원장

## 낙동강과 문화

홍종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고문



당초 4대강살리기 사업은 주로 경제적 이해와 토목, 생태보존 차원에서만 논의되었지만 강이 안고 있는 문화적 요소는 관심권에서 밀려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낙동강 살리기를 함에 있어 풀 한포기를 뽑고 흙 한삽을 파더라도 여기에 우리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정신과 문화의 숨결이 베어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낙동강의 문화를 되짚어 본다.

한자문화권에서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洞이란 글자를 쓰는데 물을 함께 먹는다는 뜻이다. 요즘말로하면 공동체 즉 커뮤니티란 말이 바로 같은 강물이나 같은 우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란 의미다. 경상도란 태백산에서 소백산이 갈려 각기 흘러내린 산맥이 동해안과 서부내륙을 둘러싼 분지에 사는 사람들이 분지 복판을 흐르는 낙동강의 분류와 지류의 물을 먹고사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영남, 교남 혹은 경상도라고 한 묶음으로 지칭되는 이곳은 바로 낙동강물을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고장이란 말이다.

문화란 여러 개념정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물질적 내지 정신적 양식과 이를 전승하는 내용이라 요약할 수 있다. 낙동강과 문화를 말한다면 바로 낙동강 물을 먹고사는 경상도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정신적 내지 물질적 양식과 이를 전승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낙동강 유역에는 이미 지금부터 7000년 전에서부터 약10만년 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구석기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았고 문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신석기,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3국시대 초기인 진한·변한·신라·가야 등의 초기 읍락국가의 문화가 있었고 그 뒤 신라와 가야,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낙동강 유역의 독특한 문화가 이어져 왔다고 하겠다. 지금 남아 있는 낙동강 본류와 지류 유역의 각종 유적과 유물, 생활양식 등이 바로 낙동강 문화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은 태백산맥의 한자락이 소백산맥으로 갈라지면서 동으로는 태백산맥이 흘러내려 동해를 가로 막고, 소백산맥은 한반도 남부의 동서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이들 두 산맥에서 발원해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한데 모여 이루는 강이다.

낙동강 본류의 길이는 525km(천삼백리)로 남한 제일의 긴 강으로, 한강의 514km보다 약간 길고, 본지류를 합친 유역면적은 23,859km<sup>2</sup>로 한강 유역 다음으로 넓고 유역면적은 남한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 함백산의 황지라고 하나 정확히 말한다면 강원도 태백시의 천의봉에 있는 너털샘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샘에서 시작되는 실개천이 황지에서 발원하는 황지천과 만나 큰 물줄기를 이루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인 도강산맥을 거쳐 봉화군 석포의 명호에서 본격적으로 낙동강이 시작된다. 도강산맥은 강이 산을 뚫고 흘러 그 아래 소를 이루는 형태인데 뚫린 굴은 약 3억~1억 5천년의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석회암굴이며 이 굴 때문에 만들어진 소를 구무소라 부른다. 봉화 명호에서 낙동강은 이나리강이라 하고 여기서부터 경북과 경남지역의 중심부를 ㄷ자형태로 흘러 부산서부 다대포 지역에서 남해로 흘러든다.

낙동강은 흔히 7대 지류 혹은 12대 지류를 가진 강으로 보고 있다. 주요한 지류를 보면 반변천,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금호강, 대가천, 황강, 남강, 밀양강, 양산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낙동강의 물길은 봉화에서 이나리강을 형성해서 남류하다가 반변천과 길안천을 만나는 지역에 안동을 만들고, 서쪽으로 향해 흐르다가 내성천과 영강이 마주치는 삼강지역에 예천을 만들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내려 병성천과 만나는 곳에서 상주를 만든다. 남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창녕을 만든 뒤 다시 동



낙동강 발원지

쪽으로 흘러 밀양강과 만나는 곳에서 밀양시를 만든 다음 활모양으로 남쪽으로 휘어져 양산천과 만나 김해시를 만들면서 을숙도 지점에서 남해로 흘러내리며 을숙도를 포함, 서부 부산 지역을 만들어 낸다.

조선시대에는 낙동강 동쪽을 경상좌도라했고, 서쪽을 경상우도라했다. 이렇게 낙동강은 제1지류와 만나는 지점들이 큰 취락을 이루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사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형에서 가장 다른 점은 강의 흐름에 있다. 경상도의 산과 강, 벌판에서 흐르는 물은 모두가 중국에는 낙동강 한곳으로 모여 모든 물이 함께 남해로 들어간다. 반면 전라도의 강은 대부분 발원지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기 다른 물줄기로 합쳐져 남해와 서해로 분산되어 흘러간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경상도에도 경주-포항을 흐르는 형산강과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낙동강에 합류되지 않고 각기 동해로 흘러가고 진해이남의 한산산맥 남쪽의 냇물들도 각기 달리 남해로 흐른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경상도 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들 지역주민 역시 낙동강의 지류와 본류를 이용하지 않으면 경상도 지역 전체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은 경상도 지역에서 정주권의 중심이 되지않을 수 없고 본류와 지류가 합쳐지는 여러 거점이 역사적으로 문화의 거점이 되어 왔다.

낙동강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곳들이 예로부터 어떤 역사적 환경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적으로 보면 상고시대, 신라통일기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근세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일관된 경상도인의 기질이 낙동강 문화를 만들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가야 고분군

상고시대의 경상도는 진한·변한의 땅으로 많은 읍락국가들이 산재해 있었고 신라가 성립될 무렵에는 가야제국들이 병립했다. 대체로 낙동강의 좌편지역은 신라가 들어섰고 우편지역은 가야가 들어섰다. 이른바 3국시대라지만 일부학자들은 가야를 넣어 4국시대라고도 하고, 일부학자들은 당시까지 만주지역에 부여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5국시대라고도 한다. 그러나 경상도땅에는 신라와 가야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했을 만큼 상고시대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고, 이 신라의 옛땅과 가야제국의 옛땅은 그후에도 조선조까지 경상좌도 경상우도라해서 생활문화권이 차이가 날만큼 차별성을 유지해 온 것이다.

통일 이전의 신라문화는 같은 부여계인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른 특징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중앙아시아로부터 전래되었다고 보는 황금문화와 화랑집단으로 대표되는 천신사상 등이 특이하다 할 것이다. 특기할 점은 가야제국은 연맹국가로서 최초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형성한 국가라는 점이다. 이들은 낙동강을 통해 일본을 비롯 중국과 인도 서쪽에까지 이르는 해양문화를 수용한 국가다. 아울러 철기문화를 발전시켰고 우륵과 가야금으로 상징되는 우리 음악의 원류를 형성한 지역이기도하다.

7세기후반의 경상도땅은 우리 역사상 처음 이룩한 통일국가인 통일신라의 중심지였다. 물론 고구려가 망하고 발해가 들어서서 일부 학자들은 남북국시대라고도 한다. 어쨌든 문화적으로는 고구려문화, 백제문화가 통일신라의 문화와 어울어지는 시기를 맞았던 것이다. 당시 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약 20만호에 1백만 가까운 인구가 살았을 만큼 세계적 도시로 성장했던 것이다. 요즘말로 그로벌 문화를 보여주었다.

이전부터 전래된 황금문화는 그대로 지키면서 정신적으로는 토착신앙의 바탕위에 불교문화를 받아들여 국가이데올로기를 불교로 삼았고, 최초로 중국의 문물제도를 도입해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이를 계기로 유교문화가 유입되었고 우리말 표현을 위한 한자어의 변용인 이두를 만들었고, 우리의 노래를 가사로 적은 향가가 지어져 한국음악의 발상이 되었다. 또 화랑도 집단이 풍류도라 불리던 시절부터 무술과 무용이 발전되었다. 경산 사람 원효, 경산 사람 설총, 김해 사람 김유신 등은 바로 낙동강 인물들이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주역이었고 원효는 당대 동북아 최고의 종교인으로 불교이론가였으며, 설총은 한국 최초의 최고유학자였다. 지금도 살풀이춤은 무당춤에 연원하는 한국춤의 원류가 되고, 무당을 화랭이라 부르는 것과 무당의 복색이 옛군인의 복장인 것은 이같은 화랑의 한 전승임을 말해준다. 무술은 택견, 태권도, 불무도 등의 이름으로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고려는 신라가 망할 무렵 후삼국을 통일한 국가이지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통일신라를 계승한 국가라 할 수 있다. 고려의 후삼국통일전쟁은 바로 망해가는 신라의 쟁탈이 승패를 갈랐고, 그 때문에 이 싸움은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서 대세가 결정된 것이다. 말하자면 왕건과 견훤이 금호강전투에서 시작해서 성주의 벽진 전투, 구미의 감천-낙동강전투, 안동의 낙동강전투 등에서 일진일퇴한 끝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 그래서다.

고려는 임진강가의 개성에 도읍을 했지만 항상 자신들의 한 뿌리는 안동에 있다는 인식을 가졌고, 그것이 흥건적 침입 때 공민왕이 이곳으로 몽진했던 이유이기도하다. 몽고의 침입 때 국가의 안위를 위해 만든 대장경판도 금호강가의 부인사와 낙동강가의 해인사에 옮겨왔던 것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국가의 통치이념을 신라와 같은 불교로 했고, 국가체제를 신라처럼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서 유학을 수용했던 것이다. 관료와 승려들의 주류는 신라계였고 그것이 신라계의 경주인 김부식이 상고시대 우리의 정통을 밝히는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쓴 배경이었으며, 우리의 토착사상과 불교의 시각으로 본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금호강가의 경산인인 일연이 쓰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신라와 고려조에 걸쳐 건립된 대표적 사찰인 3보사찰 가운데 경상도 땅인 합천의 해인사와 양산의 통도사 등 2개 사찰이 있는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이다. 말하자면 통일신라와 고려의 문화는 경상도가 주도한 것이다.

고려의 멸망은 국가정신인 불교의 타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운과 함께 통치이념을 유교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개혁 엘리트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유일한 유교국가 조선이 탄생된 것이다. 본래 고려 유학의 주류를 형성했던 인물들이 신라계였는데다 유교국가 조선은 바로 경상도 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대표적으로 조선건국의 설계와 연출을 맡은 사람은 봉화인 정도전이였다. 물론 많은 무인들이 정변을 일으켰지만 나라의 방향을 잡고 기틀을 만든 사람들은 경상도 유학자들이다.

고려말을 대표하는 최고유학자로는 이른바 3隱을 꼽는데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 治隱 吉再라 하고 후자는 목은 대신 陶隱 李崇仁을 넣기도 하는데 이들은 모두 경상북도 사람들이다. 이색은 영덕인이고 포은은 영천인이며, 야은은 구미인이며 도은은 성주인이다. 영덕이 청송과 연결된 것을 생각하면 모두 낙동강 유역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조 통치이념인 유학은 포은과 야은에 의해 고려에서 조선으로 학맥이 이어지며 밀양인 김종직, 현풍인 김굉필, 양동인 이언적으로 계승되었고, 함창인 홍귀달, 안동인 이현보에 이은 안동인 퇴계 이황에 이르러 가장 큰 봉우리를 이룬다. 동시대의 합천인 남명 조식과 함께 영남학맥을 형성하고 이 영남학맥이 조선조 유학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며 기호학과 등으로 지맥을 형성했다. 영남학맥으로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우복 정경세, 갈암 이현일 등과 함께 남명 조식, 내암 정인홍, 동강 김우옹, 덕계 오건 등으로 이어져 조선조 말에 이르러서는 한주 이진상, 면우 곽중석 등에 이르는 거대한 산맥을 형성했다. 이들은 낙동강 유역에서 태어나고 이 유역에서 거주하면서 조선조 유교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다. 전국에 독보적인 구곡문화, 수많은 전적과, 재실, 향교, 서원, 종택, 전통마을, 음식문화, 예절 문화 등을 남겼습니다.

한편 낙동강 물길 따라 나무가 들어서고 나무가에는 시장이 들어서고 주막이 생겨났다. 낙동강 물길 따라 상류에서 땃목과 곡물이 내려가고 하류에서는 소금배가 올라오는 등 교역의 통로가 열렸고 임란직후 한 때는 화원 지역에 왜창이 설립되어 국제무역의



하회마을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음악예술로는 농민들은 농요를 부르는 등 경상도 특유의 소리인 메나리조 동부민요를 탄생시켰다. 이와 함께 이들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는데 탈춤과 광대놀이가 그것이다.

한편 낙동강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고 특히 유역민들의 애국심은 청사에 빛나고 있다. 임진왜란은 흔히 의병전쟁이라 한다. 물론 이순신의 해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육지에서 관군이 없는 의병전은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 특히 왜군의 주된 이동과 보급통로로 계획됐던 낙동강 수로가 영남의병이 장악함으로써 왜군의 예봉이 꺾인 것은 우리의 승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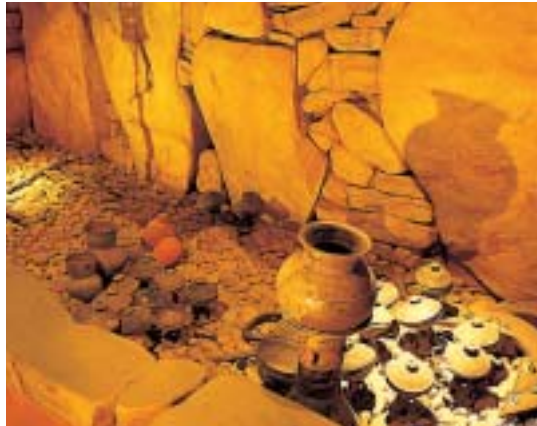
조선조말 일제가 침략해 올 무렵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나 그 선봉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인물들이 영남의병이다. 특히 낙동강가 구미의 허위 선생은 을사조약 직후 전국의 의병을 한양으로 집결시켜 한양을 포위하고 항일전쟁을 치룬 바 있다. 일본의 채무를 갚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자는 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그 뒤 일제강점기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항일 애국지사를 경상도에서 배출했고 특히 파리독립청원을 한 곽종석과 김창숙 등은 유림의 독립운동을 주동했으며, 안동 등 북부권의 퇴계학파의 선비집안을 중심으로 한 애국지사들은 나라 전체 독립지사의 절반이 넘었다.

건국 이후에는 6·25전쟁기간 낙동강 전선은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고, 낙동강 전투에서 국군이 패배했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이다. 대구사수 낙동강방어가 오늘의 이 나라를 북한 공산침략으로부터 지켜낸 것이다. 건국 이후 민주화의 첫 횃불을 든 것도 대구 2·28민주운동이었다.

이러한 기질과 역사를 가진 경상도에는 어떤 유적들과 유물이 남아 있는지 굵직한 것들만 살펴본다.

경상도 지역에는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밀양시 고례리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고, 대구의 달서구 월성동에서도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고 수성구 파동에서도 구석기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낙동강 본류와 지류변에 위치해 있다.

삼한시대의 소국들의 유적지와 삼국시대 초기의 각종 유적 유물들, 특히 많은 고인돌 무덤과 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남방형 토기류를 비롯한 가야고분, 철기를 비롯한 각종 매장문화재들이 술하게 남아 있다. 특히 낙동강가의 개진 양전리 암각화를 비롯한 몇 종류의 암각화는 선사문화의 신비감을 나타내고 삼한시대의 유적인 창원의 다호리 고분군은 여기서 발견된 중국과의 교역을 증거하는 오수전 등의 발견으로 당시의 국제적 교류를 말해준다. 고령, 대구, 창녕, 합천, 김해, 함안, 고성 등지의 가야고분은 아직도 가야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과거의 찬란했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대구는 청동기 문화의 보고

대구 신천, 금호강 유역에 발굴된 청동기 유물과 달성토성, 고성토성, 화원토성 등도 주요한 상고시대 유물 유적들이다. 이미 전술했듯이 신라는 많은 불교유적을 남겼는데 영주의 부석사, 문경의 봉암사, 최고 오랜 건물로 엘리자베스왕이 다녀간 안동 봉정사, 구미의 도리사, 김천의 직지사, 함천 해인사, 대구 동화사, 청도 운문사, 양산 통도사 등 숱한 고찰들이 남아 있다.

고려·조선조의 유적으로는 이 지역에는 불교유적과 함께 유교유적들이 많이 남았고 전통마을, 종가, 향교, 서원, 누각, 정자 등이 산재해 있다. 우리 고유의 토속신앙, 외침 등과 관련한 문화재들도 숱하게 남아 있다.

일반 유적지로는 성주 월항의 세종의 태자태실, 의령의 홍의장군 임란의병 창의 소나무 등이 있다. 종가로는 안동지역에 내앞의 의성김씨 종가, 학봉 종가, 퇴계 종가,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가송리의 농암 종가가 있고, 집단 취락지로는 봉화 닭실마을, 안동의 하회마을, 예안의 군자리 마을, 영주의 무섬마을, 영양의 주실마을과 두들마을, 성주의 한개마을, 의성 산운마을, 군위의 한밤마을, 대구의 옷골마을, 묘골마을, 못골마을, 소래실 마을 등이 지금도 옛정취를 느끼게 한다. 개인 정원로는 영양의 반변천가에 있는 광해군 시대 건립된 서석지가 특별이 돋보인다.

서원으로는 단연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산청의 덕천서원과 산천재 등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원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옛길로는 대표적인 곳이 문경새재, 죽령재, 그리고 문경새재를 넘는 진남문과 토끼길, 문경새재에 남아 있는 윈터, 퇴계가 다녔다는 청량산의 옛길, 낙동강, 영강, 내성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삼강나루 등은 옛선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들이다.

낙동강을 낀 시장으로는 대구의 큰장과 약령시가 대표적이고 풍기의 인삼시장도 전국의 상인들이 들끓었던 지역이다.

낙동강을 낀 무형문화재로는 대표적이 것이 소리로는 영남의 메나리창법으로 부르는 동부 민요와 예천의 통명농요, 함창의 공갈못노래가 유명하고 영남고유의 시조창인 영제시조가 있다.

춤으로는 영남무속에서 유래하는 살풀이가 있고, 탈춤으로는 안동의 하회탈춤, 진주의 오광대 놀이가 있으며, 대구의 날뽕북춤이 뛰어나다. 민속놀이로는 안동의 뚝다리밟기, 자인의 한 장군 놀이 등이 있다.



도동서원

전통음식류로는 영양의 안동장씨부인이 쓴 음식띠미방이 반가음식의 표준이 되었고 이것이

엘리자베스여왕이 왔을 때 안동의 반가음식으로 접대한 것이 여기에 연원하고 있다. 술로는 문경의 호산춘, 안동의 안동소주, 김천의 과하주, 현풍의 하향주가 유명하고 안동의 안동포, 예천의 활 등이 크게 이름을 떨쳐 왔다. 이 밖에 문경과, 고령 등지는 도자기로 크게 이름을 얻고 있다.

특히 강문화의 백미로는 구곡문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주자의 무이구곡을 본딴 조선조 선비들이 자신의 고장에서 강을 따라 경치좋은 곳 아홉 구비를 정해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거기에서 강학과 학문의 토론을 했던 문화다. 이 문화는 전국에 퍼져 있으나 낙동강 본지류에 가장 많아 낙동강 문화의 정수라 하겠다. 대표적인 구곡의 원림으로는 퇴계가 살았던 도산구곡, 주세붕이 살았던 영주 순흥의 죽계구곡, 조선조 후기의 학자 정만양 형제가 살았던 영천 화북의 횡계구곡, 경주의 옥산구곡, 청도의 운문구곡, 성주의 정구가 살았던 무흘구곡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세에는 6·25전쟁의 흔적을 남긴 낙동강 철교의 잔해, 안동 천전리의 조선인 손으로 건립한 최초의 서양식 학교(현 독립박물관), 대구 동산병원 뒤 선교사의 집과 계산성당, 제일교회 등은 근세의 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ㄱ

#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나의 꿈을 실현하자



김 상 규  
2·28편집위원회 간사

A군은 어렸을 때에 선천성 백내장으로 인해 두 번이나 수술을 받는 등 매우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그는 몸이 회복되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다. 주 2회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방문을 통한 반찬 배달을 시작으로 자원 봉사 소식지 제작,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 지도, 장애인식 개선활동 등 무려 200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그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사회복지전문기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B양은 역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취득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고2 겨울방학 때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일 정오마다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에 참가해 자유발언대에도 섰으며, 틈틈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인터뷰해 편집해 둔 자료로 UCC ‘끝나지 않은 전쟁’을 만들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최한 제1회 전국 중·고등 학생 역사 UCC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Think Korea 청소년 역사지킴이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B양은 국사편찬위원장의 꿈을 갖고 현재 사학과에 재학 중이다.



앞서 거론한 A군과 B양은 학교 성적이 3·4등급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명문 대학, 원하는 학과에 다닐 수 있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입학사정관제 때문이다. A군과 B양은 고교 시절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견지했고, 그들이 가진 소질과 적성, 잠재적 능력을 입학사정관이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본다면 이들은 열정과 패기를 지닌 소위 ‘인재들’ 이므로 굳이 합격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최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인식되었고,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도입된 대학입학 전형 방식이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계량화된 성적뿐 아니라 개인의 환경, 소질 및 적성,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수학능력 등 잠재적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 선발하는 것이다.

2009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에 의해 전체 대학 정원의 5.4%인 20,695명을 선발하였고, 2010학년도에는 6.5%인 24,622명, 2011학년도에는 전체 대학 정원은 9.9%인 34,62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2년에는 그 수가 현재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다. 즉, 10명 중 1명 이상이 입학사정관제에 의해 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입학사정관제도 대학을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고 2011학년도, 2012학년도 대입을 앞 둔 학생이 당장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낭패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기 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활동을 해 온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남은 학교생활에 충실을 기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는데 교과점수, 각종 활동(교내·외 주요 봉사활동 등)과 학업계획서 등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둔다면 학생이 갖고 있는 성실함과 잠재력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준비해야 하는가? 아마도 그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우선 두 가지만 들어 본다.

그 첫 번째는 ‘진로를 먼저 정하라’는 것이다. 진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대비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많은 활동 성과와 특기,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한 목표와 일관성이 없다면 산만해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한 A군과 B양의 예만 보더라도 그들은 사회복지전문기자나, 국사편찬위원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와 연관된 일들을 일관되면서도 끊임없이 해 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서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생활은 기본이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학생의 고교 생활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의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학기마다 들쭉날쭉한 성적보다 꾸준히 향상된 성적이 학업에 대한 성실도 및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담임 교사의 평가도 학생을 평가하는 객관적 잣대가 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을 등한시한, 대학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단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러한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병행될 때에만 두드러 볼 수 있는 문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대다수가 학교 생활에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보이는 것은 그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학사정관제  
**들여다보기 1**

공유 의식을 갖고 넘어 넘어 넘어 다뤄보기  
영역서 물물어는 학생  
-대학 입학사정관-

**학생 선발 사례**

"학생들이 제출한 수필은 훌륭하여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수필을 쓴 학생은 그의 글이 훌륭하다. 이 학생은 우리와 함께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리학에 합격한 이 학생은 1,000페이지나 되는 '물리학' 과는 과학책을 읽고 '나의 책을 읽고 남기는' 목표를 가지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시절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입학-입학후 등차의 등 다양한 입학 관련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공부의 양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입학사정관에게 여러 번 상담한 일에도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철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자신의 세운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백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대학의 주요한 활동인 것이 인상 깊었으며, 지역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들여다보기 2**

공공을 충실히 이수하고  
개인의 꿈을 위해 꾸준한 노력한 학생  
-대학 입학사정관-

**학생 선발 사례**

"사회목표에 공부가기가 쉽지 않았을때 어떻게 해서 공부하게 되었나?"  
"4학년 1학년은 매우 어렵지만, 그 후 한 해 학교공부를 다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학과에 합격한 이 학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및 사회계층을 이해 할려는 열의가 있고, 실용적인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 공을 위해 한 해 사회목표에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으로 공부하였다고. 그 결과 내신성적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특히 관심 분야인 정치과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우수학생이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배움을 받고 있고, 이러한 봉사활동을 위한 열의가 깊어 가겠다는 의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의 미래계획에 사정관들은 높은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들여다보기 3**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단견한 비전을 가지고  
진로와 학업을 병행한 학생  
-대학 입학사정관-

**학생 선발 사례**

"이 학생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원천적으로 출신의 이 학생은 기존의 성적 중심과 선발방식으로 평가받았지만, 합격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은 상위권이 아니었지만, 다양한 활동영역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합격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기업을 이어 세계적인 모회사로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수업에도 충실하게 할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자신의 특기인 언어능력으로 동아리에게 공헌을 만들어 봉사하는 등 사회적 실천에도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학습을 전공하여 자신의 특기인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영어 무언과도 적극적으로 고집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의와 노력한 점이 돋보였고, 영어를 포함한 입학사정관들은 '자신적 꿈을 향한 열의'를 높이 평가하여 대학에서의 학업적 성취도 크게 기대되는 학생'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들여다보기 4**

자기주도적 학습을 과감하게 하고, 고교 생활에서 어떤 일로든 경험을 쌓는 것을 모은 학생  
-대학 입학사정관-

**학생 선발 사례**

이 학생은 자기주도적으로 '고등학교 때 한 것'이라고는 학교생활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그냥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노스름 하는 등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과 과목을 정말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 보여준 다소 거칠지만 결체력에 대한 열의가 느껴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부터 자신의 고교생활 동안 문제집과 수업자료도 볼 것을 재충전에 입학사정관들을 위해서도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률, 자율적 학습을 전개하여 실현된 결과 지원자의 경력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면접을 통해 경제학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면서, 입학사정관들은 무척이 인상적인 인물였던 자기주도적에 대한 무척의 관심이 통치자 열의를 높게 되었습니다."

### Q1 입학사정관제, 성적은 신경만 써도 되나요?

입학사정관제 평가기준은 학사로 통일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학습 태도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적은 물론이지만,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생활이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해요** 1학년

1학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학년 생활이 잘 되면 2학년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3학년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1학년 생활을 잘 했는지, 2학년 생활을 잘 했는지, 3학년 생활을 잘 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특히 1학년 생활이 잘 되었는지, 2학년 생활이 잘 되었는지, 3학년 생활이 잘 되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1학년 생활을 잘 했는지, 2학년 생활을 잘 했는지, 3학년 생활을 잘 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 Q2 학생들의 강아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자기 진취성을 증명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강아지는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의 진취를 통해 자신의 목표와 열정을 증명하십시오**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성적인 성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Q3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시간에 맞추어 참여하면 되는 걸까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시간에 맞추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진 학생** 1학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진 학생은 입학사정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Q4 입학사정관제 입학처별, 정말 도움이 될까요?

입학처별로 다른 지원 전략을 세우십시오.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처별로 다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진 학생** 1학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진 학생은 입학사정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Q5 고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적인 환경이 입학사정관 전형분야에 도움이 될까요?

자신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고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적인 환경은 입학사정관 전형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진 학생** 1학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진 학생은 입학사정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TIP

### 입학사정관제 준비하기

1.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려에서 출발하라
2.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것은 기본이다
3. 자신의 진로에 맞게 주도적으로 활동하라
4. 모든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5. 평가서류는 진심어리게 작성하여야 한다

### Q6 라이 특기자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증명하십시오.

라이 특기자전형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진 학생** 1학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가진 학생은 입학사정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설계 공모

2010년 7월 21일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 설계 공모 심사에서 ㈜토담건축사사무소(대표 김진식)와 ㈜디자인피움(대표 장순희)이 공동 응모한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대구시 조기암 자치행정과장과 2·28 이사 참석하에 관계 건축사 대표가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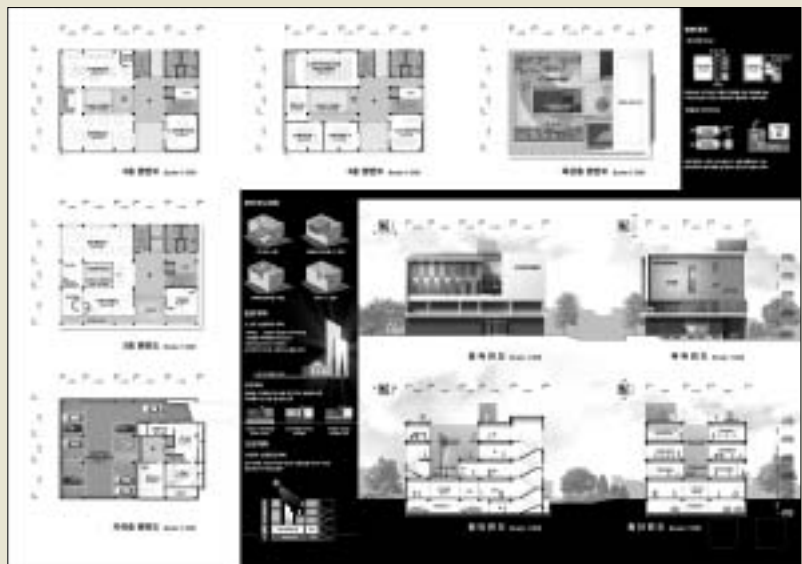
설계면적 및 시설면적표

구분	설 계 내 역	
명칭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13번지 외2필지(명덕초등학교 부지내)	
지역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020m <sup>2</sup>	
도로현황	동측 8m도로, 북측 10m도로	
건물 개요	연	지상 2,016.79m <sup>2</sup>
	면	지하 552.04m <sup>2</sup>
	적	합계 2,568.83m <sup>2</sup>
건축면적	606.90m <sup>2</sup> (법정 612.00m <sup>2</sup> 이하)	
건폐율	59.50%(법정 60%이하)	
용적율	197.72%(법정 220%이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최고높이	20.35m	
외부마감	로이복층유리, 금속판넬, 현무암, 외단열시스템/본타일마감	
설비개요	EHP 냉·난방방식	
주차개요	일반주차	14대 - 문화 및 집회시설 : 5.9대
	장애인주차	1대 - 교육연구시설 : 5.3대
	총주차	15대
조경개요	295.38m <sup>2</sup> (법정 153.00m <sup>2</sup> 이상)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지하 1층	명칭	2,568.83m <sup>2</sup>	
	소계	552.04m <sup>2</sup>	
	지하주차장	372.60m <sup>2</sup>	
	보존서고	44.46m <sup>2</sup>	
	기계실	37.65m <sup>2</sup>	
	전기실	35.29m <sup>2</sup>	
지상 1층	발전기실	16.24m <sup>2</sup>	
	공용부분	45.80m <sup>2</sup>	
	소계	588.15m <sup>2</sup>	
	2·28기념전시실	325.50m <sup>2</sup>	
	관리사무실	17.92m <sup>2</sup>	
지상 2층	기획전시실	52.26m <sup>2</sup>	
	공용부분	192.47m <sup>2</sup>	
	소계	472.34m <sup>2</sup>	
	일반열람실 1	153.86m <sup>2</sup>	
	어린이열람실	104.30m <sup>2</sup>	
지상 3층	복카페	40.20m <sup>2</sup>	
	공용부분	173.98m <sup>2</sup>	
	소계	472.26m <sup>2</sup>	
	일반열람실 2	146.82m <sup>2</sup>	
	디지털자료실	112.50m <sup>2</sup>	
지상 4층	전산실	8.89m <sup>2</sup>	
	2·28특화자료실	52.26m <sup>2</sup>	
	공용부분	151.79m <sup>2</sup>	
	소계	480.04m <sup>2</sup>	
	2·28청소년 교육장	120.09m <sup>2</sup>	
지상 5층	문화강좌실 1	50.01m <sup>2</sup>	
	문화강좌실 2	47.70m <sup>2</sup>	
	세미나실	34.56m <sup>2</sup>	
	2·28기념사무실	52.26m <sup>2</sup>	
	공용부분	175.42m <sup>2</sup>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 2·28 도로명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2·28도로명주소 제정

대구시 중구청은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구·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화에 따라 단순한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 제정·시행으로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되게 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여 간결하면서 편리한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28기념관이 건립될 대구시 남산1동 843번지 일원에 역사성을 고려해 2·28도로명을 부여하고, 앞으로 2011년 상반기에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고시하여 주민등록 주소, 각종 인·허가 신청시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12년 1월부터는 현재의 주소를 대체하여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고 했다.

### ◆ 2·28길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

- 각 동 및 실과 의견수렴기간 : 2010. 1. 21. ~ 2. 19.
- 의견제출 : 12건(2·28길, 문우관길, 재마루길, 관덕정길 등)  
2·28길은 2·28민주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2·28기념관 건립예정지로 설정된 도로명으로 역사성을 반영하여 부여함.
- 2·28길 건물번호를 부여한 건물의 개수 : 105개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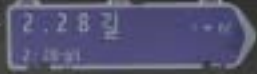
### ● 도로명판 설치 사진(2·28길)

시작점



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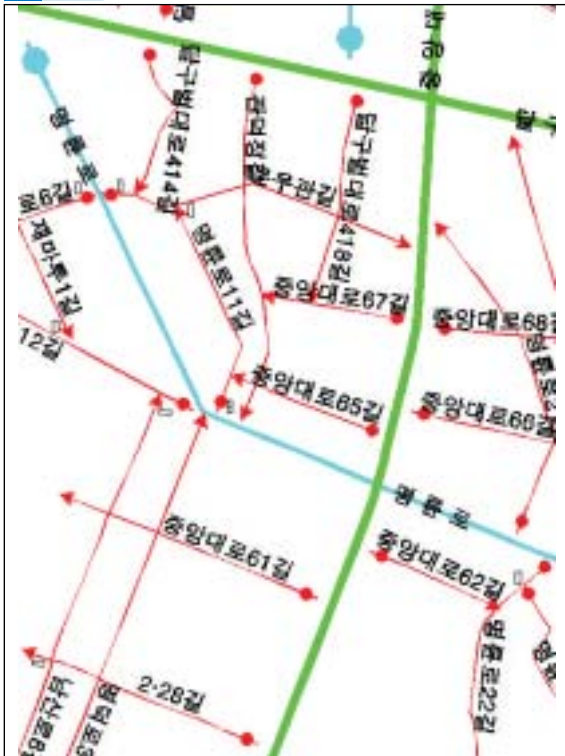


◆ 관내 중앙대로(남구 → 중구 → 북구) 일련번호방식 적용 사례

정비 전



정비 후



# KDONG RIVER

낙동강 700리를 생명의 강,  
경제의 강, 환경의 강,  
문화의 강 소도

## 대구신문사 초청 4대강 살리기 낙동강 현장체험

지난 9월 3일 대구신문사 초청으로 2·28기념사업회 안인욱 의장을 비롯한 임원 28명은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공사현장을 탐방하였다.

낙동강 투어 형식으로 이종훈 사회2부장의 안내로 구미시 진평동 동락공원내의 경상북도 낙동강 녹색체험관에서 문화, 미래, 경제, 생태계 존과 3D영상관의 캐릭터 “낙동이”의 낙동강 가상 체험관, 낙동강 살리기 32공구 구미보의 안전하고 풍부한 물, 깨끗한 낙동강 수호를 위해 43% 공정을 보이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현장설명을 청취하고 궁금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응답도 가졌다.

이어서 일행은 최근 세계문화제로 등록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로서 류성룡(柳成龍)이 공부하고 제자들을 배양한 하회마을의 병산서원과 1971년 착공해서 1976년 준공한 안동다목적댐을 방문하여 홍수조절과 농업·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는 물론 수력발전시설에 대해서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짧은 하루였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卍



## 同行



황 명 강

튀김솥에 갇힌 길들이 버둥거린다  
수의치고는 호사스런,  
흰 튀김옷 한 벌씩 얻어 입은 개구리들이  
부드러운 유영의 기억 지우며 가시풀처럼 매달린다  
앞다리보다 먼저 길 열던 물칼퀴의 달변을  
사내의 젓가락이 집어 올리자  
물풀 다독이던 순한 눈알이 사내를 올려다본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있고  
베란다는 피우지 못한 꽃들로 소란스럽다  
흐물흐물 입맛 다시며 웃는 사내,  
무덤 같은 입이 개구리의 뒷다리를 마저 삼키자  
기다렸다는 듯 창가에 기대섰던 등근노을이  
사내의 全身을 뼈째 씹기 시작한다  
개골개골 튀김기름이 결사적으로 끓는다 ㅁ

경주 건천 출생. 계간 '서정시학' 신인상으로 시 등단  
한국시협, 경북문협, 경주문협 회원  
육군3사관학교 외래교수, GBN경북방송(주) 대표이사

# 끼



박 지 평

“통풍입니다. 평소 술을 과하게 드셨군요.”

의사는 나를 부르더니 검사 결과지 곳곳에 붉은 줄을 쳐 보이며 마지막 진단을 내린다.

주사기에다 약물을 주입한 의사는 간호사 아가씨 둘을 불렀다. 뽀얀 피부에 눈이 예쁜 날씬한 아가씨와 그보다 못생긴 아가씨다. 뽀얀 아가씨는 남편의 오른 팔을, 못한 아가씨는 왼 팔을 맡았다.

“꼭 잡아!”

의사의 말에 아가씨들이 힘을 주자 남편의 얼굴은 도살장에 끌려 온 소처럼 죽을 상이다.

“보호자는 나가 있으시오.”

의사는 나를 진찰실 밖으로 쫓아냈다.

통풍이라니 우선은 안심이다. 통풍이 가벼운 병이어서가 아니라 고통만큼 낮은 속

도 역시 빨라 씻은 듯 거짓말 같기 때문이다. 복도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졸린 눈이다. 간밤에 일어났음직한 일을 상상하기 좋은 얼굴들, 나도 그들처럼 눈을 감는다. 의자 위로 스멀스멀 몸이 해면되어 흘러내린다.

남편이 내 죽네 하며 발의 통증을 호소해 온 것은 새벽이었다. 그야말로 바람이 스쳐도 아프다며 곁에도 못 오게 했다. 모든 동선이 옹아가 통증이 된 듯 줄기차게 신음소리만 내질렀으니 만고천지 간병하는 이가 몸 편할 병이 통풍이구나 싶었다. 119 구급대를 불렀다. 들것에 실려 사이렌 소리도 요란히 대학병원 응급실에 오니 어언 흰히 날이 밝았다.

곧 죽어도 휠체어는 싫단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체통이 깎인다나. 그러는 그를 안내원 장정 둘에게 부탁해 냉큼 태워버렸

다. 아니면 그 체중을 난들 어쩐단 말인가. 갖가지 검사를 마친 후 류마티스 내과란 곳에 데리고 온 게 조금 전이다.

술, 평생을 두고 나를 괴롭혀 오던 물질이다. 신이 있다면 어찌 당사자를 비껴갈까, 일순 고소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더구나 통풍은 잘 먹어서 생긴 병이라니 혼자 나다니며 얼마나 잘 먹었으면 저런 병까지 걸리나 싶다.

“아얏.”

남편의 단말마가 밖에까지 들린다. 연이 어 길게

“아야아야...”

코까지 골던 건너 편 남자가 소스라쳐 깨어난다. 의사가 환부인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곳에다 주사를 놓았나 보다.

남편의 취향으로 보아 젊은 여성에게 두 팔을 잡힌다는 건 그리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처음보다 나중의 ‘아야’는 다분히 어리광조다. 나는 그의 비명 속에서 비슷했던 한 상황을 기억해 낸다.

몇 년 전, 심근경색 수술을 받은 남편이 마취에서 깨어날 때였다. 주사기를 들고 온 아가씨가 남편을 흔들며 말했다.

“어르신, 이제 정신이 드세요?”

남편이 신음소리와 함께 실눈을 뜨며 가장 먼저 본 것은 간호사의 가슴에 붙은 명찰이었다.

“응, 그래, 김양이구면, 자넨 고향이 어디지?”

실눈에도 반반한 생김은 화등잔 눈에 뒹들듯 들어오나 보다. 김양이 문경인지 점촌인지 어디어디를 주워 넘기며 그의 엉덩이를 때리자 으으으, 비명이 온 병실 벽을 흔들었다.

“아니, 아직 안 찢렸는데요?”

김양이 주사기를 들어 보이며 한 말이다.

아가씨가 상기된 얼굴로 팔을 주무르며 나왔다.

“보호자님, 들어 가 보세요.”

하더니

“환자분이 저만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한다.

단단히 화가 났다. 그러나 어딘가 말투가 물렁한 구석이 있는 걸 보면, 그 싫어하는 정도가 그리 심각하진 않아 보인다. 하기사 반팔 간호복 아래 야드르르 드러난 팔뚝에 손자국이 붉긴 하다.

아가씨는 예쁜 쪽이었다. 卍

## 西芝 金潤植 시비 건립 제막식에 참석

서지 김윤식 시비 건립추진위원회 최희욱 위원장이 경산시민과 유지들의 뜻을 모아 “제15회 경산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 13일 경산시 남매공원에 2·28대구 학생 데모관련 저항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을 1960년 3월 1일자 대구일보에 창작·발표한 경산시 출신 서지 김윤식 시인을 범시민적으로 추모하고 그의 애국정신을 숭양하고 계승하기 위한 시비 건립 제막식에 공동의장 안인욱, 고문 홍종흠, 사무총장 박명철 등이 참석 축하하였다. 2004년 4월 1일 개장한 “2·28기념중앙공원”내에 2005년 2월 28일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시비 건립·제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2010년 7월 15일 발행한 “햇불지” 통권 38호에 西芝 金潤植 先生 松柏操讚과 遺旨를 기리는 글을 싣기도 하였다.

오늘 경산시 남매공원에 西芝 시인이 고향을 그리워한 시, “단오端午 전날” 시비도 함께 제막하였다.

시비 건립 제막식에 참석한 안인욱 공동의장·홍종흠 고문



'단오端午 전날' 시비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시비



## 「2·28기념사업 50년」 책자발행 편찬위원회



2010. 9. 30. 2·28사무실에서 2·28기념사업 50년 책자발행을 위한 6번째 편찬위원회(위원장 홍종흠)를 개최하고 책자발행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홍종흠 위원장, 안인욱 의장, 최용호, 이완식 고문, 백진호 상임부의장, 김약수 감사, 박명철 사무총장)

## 「햇불 39호」 제작 편집회의



지난 9월 6일 2·28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햇불 39호 편집위원회(위원장 김약수 대 구미래대학 교수) 회의를 개최하고 햇불 제호 변경을 확정하고 편집내용을 검토하였다.



## 2·28일지

- 7. 21. 2·28기념관 건립설계 공모심사 결정(홍중흠 고문 참석)  
(주도담건축사사무소(대표 김진식), ㈜디자인피움(대표 장순희) 공동 응모 작품 설계)
- 7. 23. 2·28기념회관조감도당선작설명(자치행정과장 및 관계자, 이사 다수 참석)
- 7. 26. 이대우 유고집 발간위원회 협조 사항 협의
- 7. 26. 제5차 임원회의(안인옥 의장, 이완식, 최용호 고문, 권국현 부의장, 정태일, 장영향, 이방현, 김약수, 박명철)-건설본부 설계, 조감도 설명
- 7. 29. 대구시 김선대 자치행정국장 내방 업무 협의(안인옥 의장)
- 8. 4. 이대우 추도문 원고 송부
- 8. 5. 경북서예학원 류영희 원장 내방 “햇불지” 제호 휘호 청탁(안인옥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 8. 10. “햇불지” 시문·문예광장, 학술포럼 정리
- 8. 15. 제65회 광복절 기념식 참석(안인옥 의장)
- 8. 18. 대구광역시교육청 전문직·교감직무연수 2·28특강(안인옥 의장)
- 8. 20. 고 이대우 교수(분회 이사) 유고집 발행기념행사 참석  
(안인옥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홍중흠 고문, 양성호 이사의 회원 다수)
- 8. 26. 2010년 8월말 송축(대구여고 홍옥교 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신병현, 체육고등학교 최종억 교장, 대구고등학교 우낙현 교장)
- 8. 27. 제6차 임원회의(안인옥 의장, 홍중흠 고문이사, 최용호 고문이사, 백진호 상임부의장, 권국현 부의장, 장영향 부의장, 여행웅 이사, 이방현 이사, 서성욱 감사, 박명철 사무총장)
- 9. 3. 대구신문사초청 4대강살리기 낙동강 투어(구미, 상주, 안동) 참석  
(안인옥 의장 외 21명)
- 9. 6. 햇불 39호 편집회의(2·28사무처, 김약수 위원장외 5명)
- 9. 9. 서재중학교 학부모대학 특강-자녀교육과 2·28민주운동(안인옥 의장)
- 9. 13. 2·28기념사업 50년 원고 워드화 작업
- 9. 14. “햇불지” 표지 사진 협조 요청(문상직 화백)
- 9. 15. 신병현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방 업무협의(안인옥 의장)
- 9. 24. 대구시 김선대 자치행정국장, 2·28기념관건립부지 현장확인
- 9. 24.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이희웅 교육장, 이재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주 교육지원국장 예방 업무협의(안인옥 의장)
- 9. 27. 대구시건설본부 건축팀장 내방, 2·28기념관 업무협의(박명철 사무총장)
- 9. 29. 2·28기념관건립 자문회의(대구시건설본부회의실)  
(홍중흠 고문, 박명철 사무총장 참석)
- 9. 30. 2·28기념사업 50년 책자발행 편찬위원회(2·28사무실)  
(안인옥 의장, 홍중흠, 최용호, 이완식 고문, 백진호 상임부의장, 김약수 감사, 박명철 사무총장)
- 10. 13. 서지 김윤식 시비 건립 제막식 참석(경산시 남매공원)  
(안인옥 의장, 홍중흠 고문, 박명철 사무총장)

# 2·28민주학생운동 50주년 기념 학생마라톤 대회

## ● 개최 목적

1960년 독재에 항거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학생운동”(1960년) 50주년을 기념하여 2·28민주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함.

## ● 행사 개요

▶ 일 시 : 2010년 10월 23일(토) 오전 9~12시

▶ 장 소 : 두류공원내 야구장

(집결장소 : 2010년 10월 23일 오전 9시 두류공원 야구장)

▶ 참가인원 : 총 800여 명

- 1960년 2·28 참가 8개 고교생 600명(학교당 70~80명 선)  
(경북고, 사대부고, 대구고, 상원고, 대구공고, 대구자연과학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 2·28주역 100명 및 지역 각급 기관단체장 등
- 내년부터는 대구지역 전체 고교로 확대

## ● 주최측이 제공하는 물품

- 반환점 식수, 간식 및 음료수
- 참가기념품(기념메달 혹은 타월)
- 경품추첨권(자전거 20대)
- 자원봉사시간 인증서

## ● 초청 인사

각급 기관단체장

● 주 최 :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일보

● 후 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TBC



# 희망이 함께 희망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이뤄지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당신의 희망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랜 희망이 실현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당신의 희망과 지역경제가 함께 더 크게 커져갈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경제의 작은 희망이 되겠습니다.